

교회와 세상의 통로 복음의 길목

제224호-창립2020.6.28



길목교회
THEWAY NEWS

주후 2024.11.3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교육목사: 권세진
협력목사: 김홍현
교육전도사: 전정민
교육전도사: 김상진
음악사역: 이건명

찬양팀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조성권

홈페이지

theway.news



즐거운 교회 공동체

예배는 정죄와 비판의 날 선 율법주의로 물든 시간이 아닌 위로받고 나누며 사명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열린 주일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예배 시간

[다함께 커피토크] 매 주일 오후 1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행복한 시간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사회와 동떨어져 우리끼리만 살아가지 않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주신 재능을 통해 내 삶의 현장에서 사역합니다.

[열린독서모임] 신앙, 사회, 역사, 문화 책 / 함께 읽고 나누며 풍성해지는 시간

성령과 은사를 귀중히

성령의 시대,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행동합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와 은사 사역 모임] 목요일 오전 10시30분 ~ 오후 3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제자와 선교사

주일에 한 번, 한 시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일상에서 모든 일 가운데 선교적 소명으로 살아갑니다.

[카페 데이트&신앙.성경 QnA 커피토크]

주일 하루만 중요한 날이 아니라, 24시간 내 일상이 선교지입니다.

주일예배

고백과 참회

예배로 부름 인도: 이길주 목사

입례송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다같이

♩ = 64

F F A/C# Dm7 Cm7/A Gm7 G/B Bb/C C7

내 주님 서신발앞 에 내 주님 서신발앞 에 내

F/A Cm7 F7 Bb Gm7 C7 F Dm7 Gm7 Bb/C F

주님 서신발앞 에 나-옆드 려 경배합니 다 예배 합니 다

성서교독 빌립보서 2장 다같이

인도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인도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성도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도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성도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인도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도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인도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성도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참회기도..... 나,이웃,교회,세상..... 다같이
사죄의 확신..... 다같이

인도자 만일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성도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케 하십니다.**
아멘

찬송과 감사

찬양..... 찬양팀과 함께 다같이
감사의 고백..... 다같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 3가지 이상을 생각하고 주보 감사노트에 기록해보세요

말씀과 나눔

말씀읽고 듣기.....요한복음 3:1-21..... 다같이
말씀묵상과 권면..... 조별로 나눔
묵상기도..... 다같이

응답과 축복

응답의 찬양..... 다같이

♩ = 72

p F C Dm B♭ D G C F C Dm Gm C 3 F

사랑의나눔있는곳에하나님께서계시도-다

두 번 반복해서 부릅니다

말씀기도..... 다같이
감사찬양..... "하나님의 부르심"..... 다같이
결단과 축복..... 다같이

인도자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제자와 선교사입니다

성도들 **보냄 받은 곳에서 주님의 신실한 증인이 되겠습니다**

인도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에서 지켜주십니다

성도들 **매일 기도하고 묵상하며, 정결하고 착한 행실로 살겠습니다**

다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시며, 은혜와 평강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노트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한 일 3가지 이상을 기록해보세요



성경말씀 메시지

1-2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력한 지도자였다. 하루는 그가 밤늦게 예수를 찾아와서 말했다. “랍비님, 우리 모두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선생님이 하시는 일, 곧 하나님을 가리켜 보이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3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네 말이 정말 맞다.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내가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4 니고데모가 말했다. “이미 태어나서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배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고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5-6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귀 기울여 듣지 않는구나. 다시 말해 주겠다. 사람은 누구나 근본적인 창조 과정을 거쳐야 한다.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성령’을 통한 창조,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게 이끄는 세례, 이 과정들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기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태어난 아기는 다만 네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몸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몸 안에 형성되는 인격은 네가 절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성령—으로 빚어져 살아 있는 영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7-8 그러니 너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말, 곧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내 말에 놀라지 마라. 너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너는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의 소리는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하나님의 바람, 곧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도 다 그와 같다.” 9 니고데모가 물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10-12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선생이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느냐? 잘 들어라. 진리를 있는 그대로 일러 주겠다. 나는 경험으로 아는 것만 말한다. 나는 내 두 눈으로 본 것만 증언한다. 얻어들은 말이나 전해 들은 말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너는 증거를 직면해서 받아들이기는커녕 이런저런 질문으로 꾸물거리고 있구나. 손바닥 보듯 뻔한 사실을 말해도 네가 믿지 않는데, 네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말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13-15 하나님 앞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밖에는 아무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백성에게 보고 믿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러면 그를 바라보는 사람, 그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마다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16-18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무릅쓰고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일러 주시려는 것이 아니다. 아들이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고 다시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누구든지 아들을 신뢰하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지만, 아들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사형선고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도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19-21 너희가 처한 위기 상황은 이러하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지만, 사람들은 어둠을 찾아 달아났다. 그들이 어둠을 찾아 달아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악행을 일삼고 부정과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은 누구나 빛이신 하나님을 싫어해서, 그 빛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괴롭고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와 실제 안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빛이신 하나님을 맞아들인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었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성경말씀 개역개정

(요 3:1-21) (1)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9)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11)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12)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9)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나눔묵상질문

예배중 나눔을 갖기 전, 안내 사항을 한 사람 씩 교대로 읽고 시작하십시오.

1.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남에게 가르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2.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3.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과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실것을 소망합니다.

나눔의 인도는 팀에서 결정하여 진행해주십시오.

<나눔 질문>

1.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언제 왜 찾아왔습니까? 그의 모습을 통해서 느끼는 바는 무엇입니까?
2.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거듭남”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3.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구절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4. 이 본문에서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는 것’을 넘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영생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감사찬양

하나님의 부르심

♩ = 65

Words & Music by
손경민



하나
작은



님의부-르심-에는-후회하심이-없네- 내가이자리-에 선것도-주의
나를부-르신-뜻을-나는알수없-지만- 오직감사와-순 종으로-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부-르심-에는-결코실수가-없네- 나를
길을가-리라- 때론내가연-약해-져도-주님날도우-시니- 주의



부르신-하 나 님의- 신실 하 심을- 믿 네-
놀라운-그 계 획을- 나는 믿 으며-살 리-



날부르신뜻- 내생각보다크고- 날향



한 계획- 나의지혜로측량못-하 나- 가장



좋은길로- 가장 완전한-길로- 오늘도 날이끄심-믿네
신실하신 주를찬-양해

교회안내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12: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12:30
주일 공동체나눔	주일 오후 1:00~3:00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목요일 오전 10:30 ~오후 3:00
사모공동체모임	금요일 오후 1:00~4:00
1:1 청년 성경과외	정한 요일과 시간에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교육목사	권세진
교육전도사	전정민	협력목사	김홍현
교육전도사	김상진	음악사역	이건명

찬양팀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조성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gilmokchurch>

신한은행 140-013-701830 대한예수교장로회 길목교회



길목교회 가치추구

길목교회는 사회 가운데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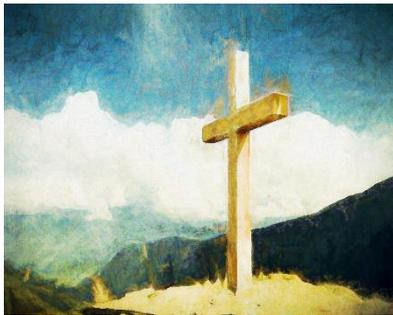
길목교회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어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는 선교사입니다. 세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예배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이 시대의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며, 후손들에게도 계승하여 이 땅에 쓰신 주의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역사하도록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일상 속에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건물에 모여서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때의 예배만 예배로 드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내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인식하고 주님의 제자로 선교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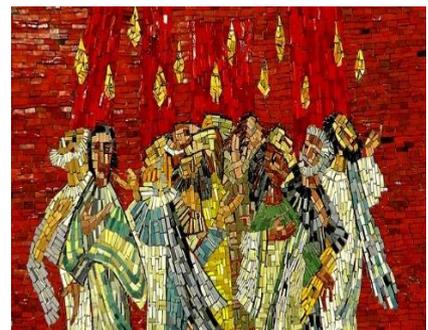
길목교회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예배와 기도, 교제와 교육,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설교가 예배의 핵심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이고, 쓰임 받는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도구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시대로, 교회는 마땅히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고,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교회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간구하고,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길목교회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음성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슬로베니아 선교 작성

길목교회는 11월1일부터 2025년 11월1일까지 1년동안 슬로베니아 선교를 담당하시는 이준희 선교사님 가정에 후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다음달 1일부터 매월1일 개인당 1만원의 후원을 아래 내용과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봉투 - 선교헌금에 체크 하시거나

통장송금 - 길목교회 통장으로 선교000 (000은 자기 이름)- 매월 자동이체를 추천합니다

성도분들이 보내주신 헌금 만큼의 돈을 교회에서 더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선교헌금을 해주시는 1년동안, 매일같이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는 선교지에 선교보고를 요청하거나 다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선교지에서 보내주시는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기도 요청해오시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후방에서 지원하는 일만을 감당할 것입니다.

<슬로베니아 선교 사역>

선교사: 이준희, 박소은 (자녀: 이교현, 이이든)

사역: 문화교실, 카페사역, 한글학교 통한 복음 전파

기도제목

- 류블라나 한인교회를 통하여 슬로베니아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 어학원 통해 언어 배우는 과정중인데 빠르게 익힐 수 있도록
- 카페를 통해 현지인들을 만나는 통로로 사용중인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잘 감당하게. 현지 직원을 고용해야 비자가 나오게 되는데, 월급이 작아서 그만두고 나가게 되어 이 문제 잘 해결되도록
- 자녀 교현이 비자가 아직 나오지 않은 문제, 새롭게 신청한 자녀와 아내 비자 잘 갱신되도록
- K-POP이 인기인데 문화를 통해 현지인들에게 잘 연결되어 복음이 잘 전달되도록.



공동체 소식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길목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중간에서 복음이 유통되는 길목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기쁘게, 신앙은 열정적으로,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선교적이기를 바라며, 건물교회에서만 아닌 우리의 삶속에서 참된 교회의 삶이 펼쳐지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방문카드>를 작성하신후 사역자들에게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오신 분은 예배 마친후 사무실에서 담임목사님 면담시간이 있습니다.

선교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슬로베니아에서 선교하시는 <이준희 선교사님> 가정을 1년동안 길목교회가 후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함께 선교에 동참하실 분들은 11월부터 매월 초, 개인당 1만원씩을 길목교회 통장으로 <선교000> 형식으로 송금해주시면 됩니다.

전교인 야외예배

다음주 10일은 전교인 야외예배로 드립니다. 자연속에서 기쁘고 행복한 시간, 기대해주세요.

장소: 강화도 브레스 하우스 (인천 강화군 양사면 덕하로 114번길 14)

순서: 예배 + 바베큐식사(김홍현 목사 담당) + 레크레이션(김상진 전도사 담당)

모임: 오전10시30분까지 장소에 집결

카풀: 교회에서 9:30에 차량 출발 (신청하세요)

예배후 식사 협력 관련 김홍현 목사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교역자 리트릿

일시: 2024.11.9 오전11시-오후5시 / 장소: 경기도 구리

교회를 위한 여러 이야기들을 지혜롭게 논의하고 평안한 침도 갖는 시간

JDHUB 제3회 포럼 '크리스천의 우울, 바로보기'

일시: 2024.11.11.월요일 오후1시-오후6시

장소: 방주교회 비전센터 B1 비전홀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22길 16)

내용: 우울증 현황/ 우울의 병리적, 성경적 원인/ 우울증 회복의 개인,기관,교회 사례

강사: 지용근대표, 김규리교수, 이재현교수, 고직한선교사, 한승일목사, 이기원 목사

회비: 1만원 (사전 계좌 입금 시 5천원 / 카카오톡 7979-78-35425, 조화평)

신청: jdhub.kr 홈페이지

관심있는 분들은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행사를 위한 중보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사역

11.6.수 CBS 뉴스광장 인터뷰 사전녹화

11.7.목 서울장신대 신학대학원 사경회 설교

11.11.월 JDHUB 제3회 포럼



제3회 JDHUB FORUM
크리스천의 우울, 바로보기

Program

시간	내용
13:00-13:20	열수
13:20-13:50	경배와 찬양
13:50-14:00	환영사 (김홍현 / 지용근 목사)
14:00-14:30	한국사회와 한국기독교의 우울 대안(이본석 (서울대 석사))
14:30-15:00	우울증의 원인과 사례 (김규리 교수)
15:00-15:40	우울증에 대한 성경적 이해 (이재현 교수)
15:40-16:00	휴식
16:00-16:30	개인 회복 사례 - 정신질환과 울행하기 (고직한 대표)
16:30-17:00	기관 회복 사례 - 더 넓은 마음의 안착할 구축하기 (한승일 목사)
17:00-17:30	교회 회복 사례 - 자유와 소망의 공동체 세우기 (이기원 목사)
17:30-18:00	단체 사신발명 및 마무리

Speakers

이름	직책
이재현 교수	서울대학교 석사
김규리 교수	서울대학교 석사
이기원 목사	서울대학교 석사
고직한 대표	서울대학교 석사
한승일 목사	서울대학교 석사
지용근 대표	서울대학교 석사

